

2. 대학 입학생 감소 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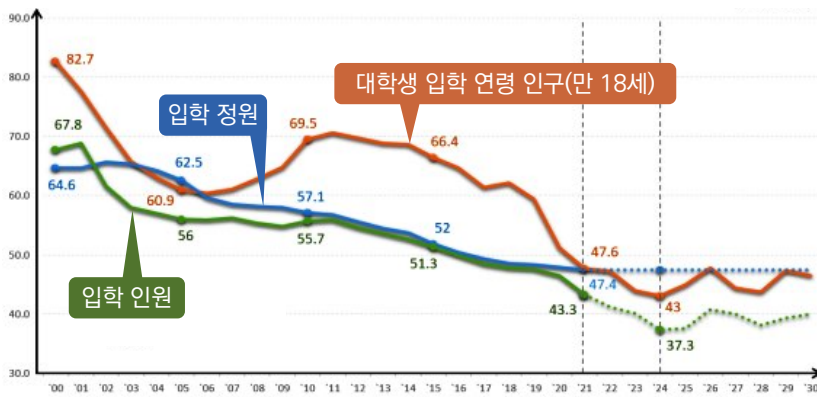
1



대입 연령 인구, 2021년을 기점으로,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급감 예상!

-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, 2000년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2021년을 기점으로 만 18세인 대학 입학 연령(만 18세) 인구가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기 시작하였고, 이러한 부족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2024년에 부족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, 2030년 까지는 그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연도별 대학 입학 연령 인구(만18세) 및 입학 정원 변화 추이(추계) (만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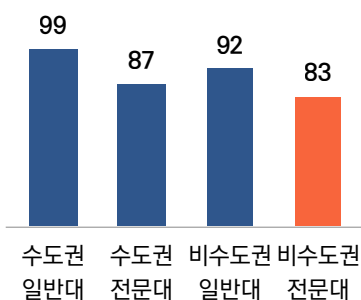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교육부 보도자료, '학령 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', 2021.05.20.
<https://www.moe.go.kr/boardCnts/view.do?boardID=294&boardSeq=84467&lev=0&searchType=null&statusYN=W&page=2&s=moe&m=020402&opType=N#>
 **학령인구는 통계청, 입학 정원 및 입학생은 2000~2020년은 한국교육개발원, 2021은 대교협, 2021년 대학 입학생 등록률 기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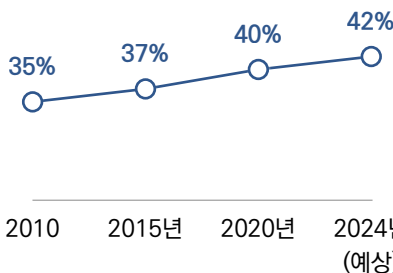
● 2021년도 대학 신입생 미달율, 비수도권 전문대가 가장 높아!

- 2021년 대학교 신입생 총원율은 '수도권 일반대'가 99%로 가장 높았고, '비수도권 전문대'가 83%로 가장 낮았다. 즉 비수도권 전문대에서 미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전체적으로 일반대보다는 전문대 미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.
-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교 신입생들이 해가 갈수록 '수도권 일반대'에 쏠리는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데, 전국 대학교 대비 수도권 일반대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5%에서 2020년 40%, 2024년(예상) 42%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
- 2000년 대비 2021년 '고3 학생'은 42% 줄었고, '대학 입학 정원'은 27% 줄었으며, '신입생 수'는 36% 감소했다.

[그림] 대학별 입학생 총원율 (%)



[그림] 전국 대학 대비 수도권 일반대 입학생 비중 변화(연도별)



[그림] 2000년 대비 2021년 고3 감소 비율

최근 11년 간 고3 학생 수

42% 감소

*자료 출처 : 교육부 보도자료, '학령 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', 2021.05.20.